

쓸 생각은 없지만, 저는 부인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몇 년 정도 희생해주시리라 기대해봅니다. 그 희생에 따님의 출세와 부인의 남은 생의 안녕이 달려 있으니 말입니다. 사람들이 왜 이 섬으로 오겠습니까? 여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닌가요? 그렇다면 조국으로 돌아가 다시 부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까?”

이렇게 말하면서, 그는 자기 흑인 노예 한 명이 들고 있던 커다란 피아스터● 동전 자루를 식탁에 내려놓았네.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.

“이 돈은 따님 아기씨의 여행 채비에 쓰라고 이모님 편에서 마련해주신 것입니다.”

그런 뒤 그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기어이 공손한 어조로 라 투르 부인을 나무랐고, 그러면서도 그녀의 고귀한 용기에 대해 칭찬했어.

그러자 폴이 갑자기 말을 가로채고는 총독에게 말했네.

“총독님, 저희 어머니께서 당신을 찾아가 부탁했지만 총독님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셨죠.”

“또 다른 아이가 있으십니까, 부인?”

라 부르도네 씨가 라 투르 부인에게 말했네.

“아니요, 총독님.”

그녀가 말을 이었지.

“이 아이는 제 벗의 아들이지만, 이 아이와 비르지니는

---

● 페늘롱(